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서우
편집 경이준희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5)5702(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33호 〈주간〉 1993년 11월 8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동육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 '총장선출 특별위원회' 구성

### 20명으로 구성 총장 선출 시안 마련

### 전체교수 총회때 비밀투표로 최종안 결정

교수협의회는 지난 3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전체교수총회를 열고 총장선출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재단이 사회에서 임명하는 안과 교수직선제 안등을 놓고 많은 토론을 벌인 끝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선출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이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구성키로 한 '특별위원회'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17개 단과대학 대표 17명과 교수협의회 의장단 3명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이후,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 총장선출시안을 마련한 후 다시 전체교수부표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 대표, 노조, 재단, 직원, 동문등 학내 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방법으로는 공청회 개최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총장선출방식에 있어서 단일안이 아닌 가능한 모든 방법중에서 반드시 복수안(2개이상의 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여기서 작성된 시안에 대해 추후 소집되는 전체교수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총장선출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식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학생, 재단등 학내외의 상황을 고려해 교수협의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학내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희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총장문제를 해결하되, 가능한한 모든 문제를 11월중에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인 권재철(행정·4)군은 이날 회의에 대해 "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거부되고 교수들만의 위원회가 구성 되기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별위원회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야 하며 학내 모든 단체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체대 교수·학생 등반대회

체육대학은 오는 12일 교수·학생 등행훈련을 북한산에서 가진다.

체대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등행에서는 교수, 조교, 학생들의 장기자랑대회도 열 계획이며 기념품도 나누어 준다.

등행에 참가할 사람은 오전 9시까지 우이동 6-1번 버스 종점에 모이면 된다.

## 한총련 '제64회 학생의 날'기념식

### 남북교류행사 불허 방침 규탄

학생의 날인 지난 3일 오후 2시 서강대 소운동장에서 서총련·경인총련(건)소속 학생 1천여명은 '제64회 학생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관련사진〉

서총련 학생들은 '서울-평양 대학생 축구대회', 경인총련(건) 학생들은 구파발에서 임진각까지 '남북 청년학생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하려 했으나 정부당국의 불허로 서강대에 모여서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정부당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이유로 축구대회, 자전거달리기 대회등 남북청년학생들의 교류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남북합의서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므로 교류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맞이하는 학생의 날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결의했다.

기념식을 마친 학생들은 오후 5시경 서울 중심가에서 시민들에게 선전활동을 벌인 후 서울역 광장에 다시 집결하여 촛불시위를 하고 자진해산했다.

한편, 한총련은 같은날 오전 10시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가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수배중인 김재용 한총련 의장(한양대 총학생회장)이 나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총련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일본에 대한 반제의식과 자주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주성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반제투쟁할 것이며 ▲완전한 군정종식과 과거청산, 민족반역자 단죄 ▲민족 대단결 의식을 고무, 추동하여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싸울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총련은 지난달 29일 전남대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배클린에 있는 공동사무국 운영과 그 주체를 박성희(본교 기악·88)씨에서 최정남(서울농대 원예학·88)씨로 선임하고 내년 한총련 출범식에 범청학련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학생 비상대표자회의 개최

### 교문진입로 관련 결의문 채택

'교문및 대학문화거리전설과 하반기 학자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 회의'가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 주최로 오늘 오후 1시 외대앞 민주광장에서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문건설에 대한 의의와 그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비상확대대표자 회의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성명서 채택및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지난 5일 제안서가 발송되었으며 학내 37개 과 대의원, 학대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 동아리 연합회등 각급 학생자치기구장과 현재 등록을 마친 차기학생회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게 된다.

총대의원회는 지난5일 발표된 성명서및 제안서를 통해 그간 계속되는 대표자 협상과 실무협상속에서도 교문및 대학문화거리 건설에 대한 학교측과의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것은 학교측의 비 적극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협상 자세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표자 회의에 대해 '학내 모든사안이 선거체계로 돌입한 현시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는 총대의원회가 이번 회의를 주최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총학생회장 강지광(입학·3)군은 "학자관련 사안들은 '셜사투쟁 장기항진'의 결의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전기금 모금액 10억원 넘어

### 2개월간 동문·교직원등 3백74명 참여

지난 9월 7일부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추진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교 50주년이 되는 99년까지 1백억원을 목표로 전개한 발전기금 모금운동 결과 지난 5일 현재 10억원을 넘어섰다.

운동이 전개된 이래 동문은 물론 학부모, 교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3백 74명 참가)에 힘입어 약2개월간 목표액의 10%인 10억원이 모금됨으로써 99년까지는 목표액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서 추진분동위원장(문리대 사학과교수)은 "그동안 발전기금 조성운동에 참여해 준 동문 및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목표액을 달성함은 물론 아무런 조건없이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뜻을 길이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전기금조성의 일환으로 94년 5월의 개교45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기념 미술전및 도예전, 음악, 무용행사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4면〉

## 한국 통신학회 총회및 추계 학술대회

### 정보통신관련 학과장협의회 결성

'제20회 한국통신 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오는 12·13 양일간 한국통신학회 주최, 우리학교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2일 삼성기술원에서 '대학의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13일 우리학교 공대 536·257동 13개 강의실에서 위성및 이동통신, 영상통신, 마이크로및 전파·광통신 등 14개 분과로 나뉘어 정보통신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논문 1백68편을 발표한다. 이번행사는 배태영 부총장 축사, 체신부 윤동윤 장관의 '정보사회와 신정보 통신정책'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논문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교수들과 기업체 관계자 및 일반 학생등 약 4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 대학 전파공학과 학과장,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설 2년을 맞는 전파공학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정보통신 관련학과 학과장협의회'결성을 결의한다. 또한 전파공학과에서는 기존의 교수방법과 다른 오디오와 비디오 장비를 이용한 시범강의를 전파공학과 전산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우리학교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배종희(전자·석사3기)—'지궤도 위성제' △주철홍(전자·석사4기)—'영상신호처리' △김태규(전산·박사2기)—'이동고속데이타 서비스용 MAC계층 프로토콜의 성능연구' △강군화(전산·석사4기)—'음성데이타 직접 서비스를 위한 셀룰러 CDMM 시스템의 성능연구 △박경수(전산·석사2기)—'CDMA 셀룰러망의 기지국과 교환기의 효율적인 연결방안에 관한 연구' △조군연(전산·석사2기)—'완성형 한글 문자의 효율적인 입력방식 연구' △윤우열(전산·석사3기)—'멀티미디어 서비스용 실시간 스케줄링 알고리즘

## 교무처 강의계획서 접수

### 전임교원 대상으로 11일까지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오는 11일까지 본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94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를 일괄 접수받기로 했다.

이는 다음 학기의 전체 강의방향과 내용이 담긴 강의계획서를 책자로 발간 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은 수강신청전에 각 학과에 미치 된 강의계획 책자를 미리 검토하여 수강과목을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출되는 강의계획서는 강의평가제와 앞으로 검토될 교수평가제에 있어 주요 자료가 될 예정이다. 한편 신용철(문리대교수·사학)교무처장은 "보다 치밀하고 상세한 강의계획서 책자냈간은 대학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으로 모든 교원이 반드시 제출할 것과 강의계획서 내용을 인쇄문자로써 줄것"을 당부했다.

#### 2차 행정고시 7명 합격

지난 8월 2일부터 6일까지 성균관대에서 치뤄진 제37회 행정고등고시 2차한각자 발표에서 우리학교는 7명이 합격했다.

총2천2백12명의 응시자 중 우리학교는 1차에 20명이, 그 중 7명이 2차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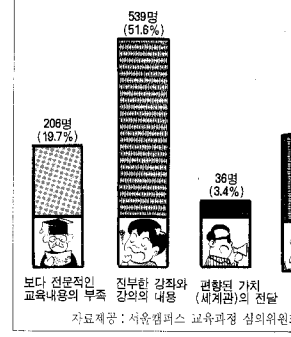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문영훈(법학 졸), 윤종욱(행정 졸), 장대성(정외 졸), 유병윤(무역 졸), 남형기(사대 경영 졸)

▲법무행정—박대순(법학 졸), 한기춘(법학 졸)

## 그 림 뉴 스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 내용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제공 : 서울캠퍼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걸음"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며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아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불퇴전의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의 경희를 약속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희를 가르켜 해외언론에서는
'극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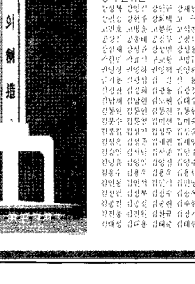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제 2의 창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하나의 벽돌이 되어 경희의 명예를 지킵시다.

경희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기금과 김재일명예 오랜 숙원사업인 대강당 완공을 위한 모교 발전 기금을 접수하고 있읍니다.
경희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한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애독자는 각 계좌별 공항 "경희대학교"입니다.)




◇엄예고문
인공성 조재성 박대원 최노수 김일주 김정진 유호근

◇고 문
박서원 김태연 박일원 최노수 김일주 김정진 유호근

◇회 장 : 조영식

◇부 회 장

◇자문위원

◇실행위원

◇수진위원

◇예외동문

◇현의위원
김남조 이세중 정무수 김일성 김원용 정세영 김동길 김영삼 김재순 김종필 김준성 김진만 김진홍 김창근 김창룡 김창영 김창일 김창준 김치렬 김태길 김태동 김태선 김태진 김태호 김태홍 김택수 김한길 김현옥 김형남 김형석 김홍일 김홍준 김홍진 김활란 김희선 김희중 김희집 김희태 김희택 김희태 김희태 김희태